

## 한·중 성격형용사 대조의 기초연구

—기준과 목록을 중심으로—

왕초옥\*·김성주\*\*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성격과 성격형용사
  - 2.1. 성격
  - 2.2. 성격형용사의 선행연구
3. 성격형용사의 기준과 목록
  - 3.1. 성격형용사의 기준
  - 3.2. 한국어 성격형용사의 목록
  - 3.3. 중국어 성격형용사의 목록
4. 나오는 말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wang1624@naver.com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교수. sutra01@daum.ne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격형용사의 기준을 고찰하고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과 성격형용사의 기본 목록을 제시하여 한·중 성격형용사 대조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의 모호하고 불충분한 기준에 따라 성격형용사 목록을 제시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성격심리학의 ‘성격(personality)’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격을 세상에 대한 성격 주체(인간 등)의 ‘마음, 사고, 행위, 태도/心底, 思維, 行爲, 態度’와 관련된 속성이나 방식으로 규정했다. ‘성격’은 ‘사람의 마음, 사고, 행위, 태도와 관련된 방식’이기 때문에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은 “①‘성격 주체(사람 등)의 (‘성격’, ‘마음’, ‘사고’, ‘행위’, ‘태도’ / ‘性格’, ‘心底’, ‘思維’, ‘行爲’, ‘態度’)가 Adj다’ 또는 ②‘성격 주체(사람 등)가 늘 (‘성격’을 표현하는) Adj”이다. 이 기준을 이용하여 한국어는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4단계)’에서 ‘게으르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부지런하다’와 같은 성격형용사 152개를 추출하였다. 중국어는 『新HSK5000詞分級詞典』에서 ‘勇敢, 卑鄙, 幼稚, 殘忍’과 같은 성격형용사 153개를 추출하였다.

**주제어:** 성격, 성격형용사, 판별 기준, 행동방식, 사고방식, 태도, 마음

##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격형용사를 정의하고 한·중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성격형용사의 기본적인 목록을 추출하여 한·중 성격형용사의 대조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성격형용사라는 용어는 배해수(1990)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그는 성격을 표현하는 서술어를 묶어 ‘성격 그림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김은영(2004), 백재남(2015), 방영심(2018), 김자영(2018), 정현정(2020)에서 성격형용사를 논의하였으나 이들이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았으며 이 기준에 따라 제시한 목록도 불충분한 것이다.

중국에서 성격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한국처럼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성격형용사를 간단히 언급한 논의는 趙春利(2006), 雷立娜(2008)가 있으나 성격형용사 판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판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시된 성격형용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 2. 성격과 성격형용사

### 2.1. 성격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격’은 성격심리학의 기본적인 연구 대상이다. 아래에서는 성격심리학에서 ‘성격’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알아본다.

〈표 1〉 성격의 정의<sup>1</sup>

번호	학자	성격의 정의	성격의 구성
1	Allport(1961:28)	성격은 그의 특징적인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정신 물리학적 시스템의 개인 내의 역동적인 조직이다.	행동, 사고, 조직화
2	Maddi(1996:8)	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 공통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성과 특성이다.	행동(행위), 사고, 감정
3	Ryckman(2000:5)	성격은 개인이 소유한 일련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	조직화, 동기, 행동
4	Mischel(2007:2)	성격은 보통 개인이 접하는 생활에 대해 적용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사고, 감정, 행동 패턴

1 이 부분은 노안영 · 강영신(2003:19)을 주로 참고하였다. 제시된 정의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Personality is the dynamic organization within the individual of those psychophysical systems that determine 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 Allport(1961:28).
2. Personality is a stable set of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that determine thos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people's psychological behavior(thoughts, feelings, and actions) that have continuity in time and that may not be easily understood as the sole result of the social and biological pressures of the moment Maddi(1996:8).
3. Personality is the dynamic and organization set of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a person that uniquely influences his or her cognitions, motivation, and behaviors in various situations Ryckman(2000:5).
4. Personality usually refers to the distinctive patterns of behavior(including thoughts and emotions) that characterize each individual's adaptation to the situation of his or her life Mischel(2007:2).
5. Personality is dynamic organization inside the person of psychophysical systems that create the person's characteristic Carver & Scheier(2012:4).
6. Personality is consistent behavior patterns and intrapersonal processes originating within the individual Burger(2018:4).

5	Carver & Scheier(2012:4)	성격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유한 패턴을 창조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 조직이다.	행동, 사고, 감정, 심리, 조직화
6	Burger(2018:4)	성격은 일관된 행동 패턴 및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 내적 과정이다.	행동 패턴, 정신 내적

〈표 1〉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 성격의 정의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표 1〉에서 Mischel(2007:2)과 Maddi(1996:8)에서는 성격은 행동, 사고, 감정으로 구성되어 두 심리학자의 성격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게 내린다. Allport(1961:28)이 정의한 성격은 개인의 행동, 사고, 조직화로 구성되어 감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Ryckman(2000:5)의 정의는 조직화, 동기, 행동으로 구성되어 감정과 사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Burger(2018:4)의 성격 정의도 마찬가지로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Carver & Scheier(2012:4)는 행동, 사고, 감정, 심리, 조직화 등 성격 요소를 구성하여 성격이라는 정의가 다른 학자들보다 총괄적이고 전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Carver & Scheier(2012)의 정의에 따라 성격을 기술하기로 한다. Carver & Scheier(2012:4)에 나타난 성격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1)과 같다<sup>2</sup>.

(1) 가. 성격은 단순히 조각들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다.

2 (1)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 (1) Personality isn't just an accumulation of bits and pieces; it has organization.
- (2) Personality doesn't just lie there; it has processes of some sort.
- (3) Personality is a psychological concept, but it's inextricably tied to the physical body.
- (4) Personality is a causal force that helps determine how the person relates to the world.
- (5) Personality shows up in individualized patterns-recurrences and consistencies.
- (6) Personality is displayed not just one way but many ways-in behaviors, thoughts, and feelings(Carver & Scheier 2012:4).

- 나. 성격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과정(processes)을 거치고 있다.
- 다. 성격은 심리적인 개념이지만 육체적인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 라. 성격은 그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원인(causal force)이다.
- 마. 성격은 개인화된 패턴(반복 및 일관성)으로 나타난다.
- 바. 성격은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행동, 생각, 감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위에 제시한 성격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성격의 특징은 아래의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가. 성격은 조직화된 것이다

- 나. 성격은 심리적 개념이다.
- 다. 성격은 행동·사고·감정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 라. 성격은 반복성과 일관성이다.

그러므로 성격의 특징은 조직화된 것, 심리적 개념, 행동·사고·감정이 드러나는 과정, 반복성과 일반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격심리학에서 성격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인용한 한국어·중국어 사전의 성격에 대한 뜻풀이를 <표 2>로 제시한다.

<표 2> 한·중 사전의 성격에 대한 뜻풀이

사전명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sup>3</sup> 이나 품성

3 이글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성격’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고 여기서 뜻풀이에 사용된 ‘성질’은 다시 “사람이 지닌 마음의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이나 품성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現代漢語詞典(第七版)』	사람과 사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방식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
『新華字典(第十二版)』	현실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행동방식에서 비교적 안정된 개성과 심리적 특징
『辭海(第七版)』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안정적인 정신적 특성

〈표 2〉에서 제시된 ‘성격’에 관한 한국어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성격’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품성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 살펴본 성격의 특징은 조직화된 것, 심리적 개념, 행동·사고·감정이 드러나는 과정, 반복성과 일관성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성격에 대한 정의는 (1, 2)와 같은 특징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 사전들에서 제시된 성격의 정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사전의 성격에 대한 뜻풀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뜻풀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제시된 ‘성격’에 관련된 중국어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성격’이란 인간의 태도와 행동방식에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現代漢語詞典』과 『新華字典』에서 제시된 성격에 대한 정의는 (2)와 같은 ‘심리적 개념’과 ‘행동이나 태도가 드러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現代漢語詞典』, 『新華字典』, 『辭海』 등과 같은 중국어 사전의 성격에 대한 정의도 (1, 2)에서 제시된 성격의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즉

---

본바탕”이라 되어 있으므로 결국 ‘성격’은 ‘마음’을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도 ‘성격’의 의미영역이 ‘마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본 연구가 문제로 삼은 것은 의미 영역으로서의 ‘마음’과 실제 문장의 주어로 쓰인 ‘마음’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어 사전도 마찬가지로 제시된 성격에 대한 정의가 전면적이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중 사전에서 제시된 성격의 정의는 모두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성격심리학자들의 성격에 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격은 행동(태도), 사고, 감정을 포함한다. 성격은 사람의 행위(태도), 사고, 감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즉 성격은 세상에 대한 성격 주체(인간 등)의 ‘마음, 사고, 행위, 태도’와 관련된 속성이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언어에서 성격은 언어 보편적으로 형용사를 통해 표현되지만 ‘사려 깊다’와 같은 구나 ‘우유부단’과 같은 관용 표현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제시하기 위해 성격형용사에 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 2.2. 성격형용사의 선행연구<sup>4</sup>

한·중 성격형용사의 기준과 목록을 제시하기 전에 성격형용사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성격형용사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어휘 연구에서 성격형용사에 관한 연구는 배해수(1990), 김은영(2004), 박재남(2015), 방영심(2018), 김자영(2018), 정현정(2020) 등이 있다.

배해수(1990)에서는 성격을 표현하는 서술어를 ‘성격 그림씨’라고 명명하여 성격을 ‘정신작용(마음의 방향), 두뇌작용(머리의 생각), 적응활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은 불명확하다.

김은영(2004)에서는 배해수(1990)이 명명한 ‘성격 그림씨’라는 용어에 따라 성격형용사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성격/머리가 Adj}의 틀에 적합해야 하며 ‘Adj-게 행동하다’와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라 추출된 성격형용사는 ‘상냥하다, 선량하다, 순진하다, 순박하다’ 등이 있다. 이 형용사들은 다시 ‘{성격/머리가 Adj}의

4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성격형용사 판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검증 틀을 이용하여 아래 (3)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sup>5</sup>

- (3) 가. ?성격이 상냥하다.  
 나. ?성격이 선량하다.  
 다. ?성격이 순진하다.

위 (3)에서 보듯 ‘상냥하다, 선량하다, 순진하다, 순박하다’ 등 성격형용사는 ‘{성격/머리가 Adj}’의 검증 틀에 적용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상냥하다, 선량하다, 순진하다, 순박하다’ 등 성격형용사가 ‘{성격/머리가 Adj}’의 검증 틀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리고 ‘{성격/머리가 Adj}’의 틀로 ‘상냥하다, 선량하다, 순진하다, 순박하다’ 등 성격형용사를 추출할 수 없다. 즉 ‘{성격/머리가 Adj}’의 기준틀은 이 기준틀에 따라 제시하는 ‘상냥하다, 순박하다’와 같은 성격형용사와 모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성격/머리가 Adj}’의 기준틀로 일부 분 성격형용사를 추출할 수밖에 없다. 즉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재남(2015)에서는 국어학에서 형용사의 유형 분류는 의미적 기준과 통사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분류 이외에 주제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성격형용사는 ‘인간의 성질이나 품성, 행동방식, 사고방식 등 인간의 속성에 대한 형용사’라고 한다.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성격이 Adj’로 설정하며 이 검증 틀에 적합한 형용사들만을 성격형용사로 본다고 하였다. 박재남(2015)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검증 틀에 적용해서 추출하는 성격형용사는 ‘순박하다, 선량하다, 온순하다, 거만하다’ 등이 있다. (4)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sup>6</sup>

5 (3가,나,다)가 가능하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주 8)을 참고할 것.

6 익명의 심사위원은 (4가,나,다)의 문법성 판단이 잘못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에서 본 연구가 중점을 둔 것은 (4가,나,다)에 비해서 (4라)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주 8)을 참고할 것.

- (4) 가. ?그 사람의 성격이 순박하다.  
 나. ?그 사람의 성격이 선량하다.  
 다. ?그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다.  
 라. 그 사람의 성격이 거만하다.

(4가,나,다)의 ‘순박하다, 선량하다, 온순하다’ 등 성격형용사가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검증 틀에 적용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4마)의 성격형용사 ‘거만하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검증 틀에 적합하다. 박재남(2015)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 ‘순박하다, 선량하다, 온순하다’ 등은 성격형용사로 봤음으로써 (4가,나,다)는 다 정상적인 문장이어야 하나 다 비문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박재남(2015)는 김은영(2004)와 같은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검증 틀로 일부분 성격형용사를 추출할 수 있는 점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검증 틀은 한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영심(2018)에서는 성격 형용사는 인간의 개인차에 대한 개념화가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sup>7</sup>. 즉 성격형용사는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심성적, 지적인 속성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를 포함하는 형용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중 ‘성질이’로 풀이가 시작되는 형용사 중에서 사람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120개를 추출하였다. 그래서 방영심(2018)에서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성격에 대한 특성(2)에서 ‘행동·사고·감정이 드러나는 과정’의 특성이 있으나 방영심(2018)에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런 특성을 갖는 성격형용사를 완전히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활발하다, 씩씩하다, 성실하다’ 등은 성격형용사인데 다 성격형용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사람의 성질과

7 개인차를 인식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에는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화자가 관여하게 마련이다(방영심 2018:254).

관련된 형용사만은 성격형용사로 보았기 때문에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문제가 있다.

김자영(2018)에서는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배해수(1990), 김은영(2004), 방영심(2018), 박재남(2015) 등의 선행연구에 나타나는 기준들을 총괄해서 제시하였다. 성격형용사의 첫 번째 특성을 제시하는 것은 성격형용사가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틀에 적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격형용사라면 첫 번째 특성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틀에 적합하면 사람의 태도, 사고를 통해 성격이 드러나는 성격형용사를 추출할 수 없다. 아래 (5)을 통해 살펴보겠다.<sup>8</sup>

- (5) 가. 그 사람의 성격이 털털하다.  
 나. ?그 사람의 성격이 친절하다.  
 다. ?그 사람의 성격이 민첩하다.

(5가)의 ‘털털하다’는 검증 틀을 만족하는 반면에 (5나,다)의 ‘친절하다’와 ‘민첩하다’인 성격형용사는 검증 틀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김자영(2018)의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문제가 있다.

정현정(2020)에서는 성격형용사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성격형용사 목록을 추출하고 유의어군을 설정하였다. 성격표현형용사의 평가성은 대인관계를 풀어나가는 행동양식에 초점을 두는 평가와 어떤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초점을 둔 평가의 의미로 나누어 보았다. 즉 성격형용사의 평가성은 타인을 대하는 행동과 사태를 대하는 태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8 본 연구에서 예문의 문법성 판단을 사전 뜻풀이와 모어 화자들의 판단에 의거했다. (3가, 나,다)와 (5나,다)의 문법성 판단에서 개인차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연구의 판단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모어 화자 집단을 구축하여 문법성 판단을 좀 더 정밀하게 추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다른 예들에 비해서 (5다)는 좀 더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6) 가. 그 사람이 급하다.  
나. 그 사람이 신속하다.

(6)에서 보듯 ‘급하다, 신속하다’ 등 형용사가 정현정(2020)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다 부합하지만 성격형용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제시하는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 성격형용사 뿐만 아니라 성격형용사가 아닌 다른 형용사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현정(2020)은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문제가 있다.

중국어의 성격형용사에 관련한 연구는 한국어보다 저조하여 성격형용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일반적인 형용사 연구에 성격형용사에 대한 논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성격형용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 논의란 趙春利(2006), 雷立娜(2008)가 있다.

趙春利(2006)은 형용사와 명사의 분류에 따르면, 철학 이론,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 관계 유형, 속성치(屬性值), 속성역(屬性域), 속성 표현 수단[屬性承載]의 의미 분석 패턴을 결합하여 형용사를 주체(主體), 사체(事體), 물체(物體), 시공(時空)과 평가의 다섯 종류로 나누고, 각각 대분류 아래 다시 몇 개의 하위 분류를 하였다. 주체 형용사는 또 감정 형용사, 성격 형용사, 지력 형용사, 태도 형용사, 의지 형용사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가 제시한 성격형용사 추출 기준은 ‘性格很Adj’이다. 그는 태도와 행동방식을 통해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성격형용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 (7) 가. 性格很溫柔.  
나. 性格很傲慢.  
다. 性格很勇敢.

(7가)의 ‘溫柔’는 성격형용사인데 (7나,다)는 성격형용사가 아니다(趙春利 2006:91).

雷立娜(2008)에서도 趙春利(2006)의 형용사의 분류에 따라 형용사를 주체(主體), 사체(事體), 물체(物體), 시공(時空), 평가(評價)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주체 형용사는 감정 형용사, 성격 형용사, 지력 형용사, 태도 형용사, 의지 형용사 등 5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말뭉치를 통해 제시하는 형용사들이 공기는 명사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雷立娜(2008)은 성격형용사를 관별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現代漢語詞典』의 성격에 관한 뜻풀이만을 제시하였다. 흔히 볼 수 있는 몇 개의 성격형용사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성격’을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격형용사의 기준을 논의하면서 상론하겠다.<sup>9</sup>

### 3. 성격형용사의 기준과 목록

#### 3.1. 성격형용사의 기준

성격형용사의 기준이 불충분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걸러지는 성격형용사의 목록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2장에서 살펴본 성격의 특성을 근거로 성격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기준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김은영(2004:59)는 성격형용사를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사고 양식에 관한 서술어로 보고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을 첫째, ‘성격/머리가 Adj’의 틀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Adj-게 행동하다’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9 태도나 행동의 방식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는 태도는 위의 (2)에서 제시한 성격의 특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3.1.을 참고할 것.

- (8) 가. \* 지수는 {성격/머리}가 {귀엽다/창피하다/수줍다}.  
 나. \* 지수는 {성격/머리}가 {친하다/난감하다/옳다}.  
 다. 지수는 성격이 {부지런하다/다정하다/거만하다}.  
 라. 지수는 머리가 {미련하다/영리하다/똑똑하다}.

김은영(2004)는 (8가,나)의 예는 성격형용사가 아닌 것으로, (8다,라)의 예는 성격형용사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8가,나)에서 제시한 비성격형용사는 주어로서 ‘어떤 사람의 성격/머리’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고, (8다,라)의 성격형용사는 ‘성격’ 또는 ‘머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기 때문에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9) 가. 지수는 { \* 높게/ \* 슬프게/ \* 화목하게 } 행동한다.  
 나. 지수는 { \* 궁금하게/ \* 부럽게/ \* 슬프게 } 행동한다.  
 다. 지수는 {부지런하게/게으르게/거만하게/겸손하게} 행동한다.  
 라. 지수는 {미련하게/똑똑하게/명청하게/영리하게} 행동한다.

김은영(2004)는 (9가,나)의 ‘높다, 궁금하다’ 등 형용사는 성격형용사가 아닌 것으로 보았고, (9다,라)의 ‘부지런하다, 미련하다’ 등은 성격형용사인 것으로 보았다. (9가,나)의 비성격형용사는 ‘Adj-게 행동하다’의 기준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격형용사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성격형용사로 판별한 (9다,라)의 ‘부지런하다, 미련하다’ 등은 ‘Adj-게 행동하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하기 때문에 성격형용사로 판정할 수 있다.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성격/머리가 Adj’의 틀에 ‘성격, 머리’ 뿐만 아니라 ‘마음, 태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제시된 성격형용사의 목록에 보이는 성격형용사들 가운데는 김은영(2004)가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으로는 성격형용사인지를 판정할 수 없는 예들도 있다는 점이다.

- (10) 가. 지수는 마음이 {순박하다/순수하다/성실하다}.  
 나. 지수는 태도가 {친절하다/당당하다/자상하다}.

(10가,나)의 ‘순박하다, 친절하다’ 등은 ‘어떤 사람의 마음/태도’를 주어로 가지기 때문에 김은영(2004)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특성, 특히 (2다)의 ‘성격은 행동·사고·감정이 드러나는 과정이다’에 의하면 김은영(2004)가 언급한 ‘성격/머리’는 ‘행동/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런데 성격은 ‘행동/사고’ 뿐만 아니라 ‘감정’ 영역의 명사를 주어로 취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정’ 영역에 들어가면서 성격형용사의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들로는 ‘마음/태도’가 있다. (10가,나)에 제시한 ‘순박하다/순수하다/성실하다, 친절하다/당당하다/자상하다’는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는데, 김은영(2004)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이러한 형용사를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은영(2004)가 제시한 성격형용사 기준의 첫 번째의 조건인 ‘성격/머리가 Adj’는 성격형용사가 결합하는 의미 영역을 너무 좁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로 가질 수 있는 명사의 범위에 ‘마음/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 판별 기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제시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예들이 성격형용사의 목록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 (11) 가. 성격이 거칠다.  
 나. ?성격이 친절하다.

(11가,나)에 제시된 ‘거칠다’와 ‘친절하다’는 모두 성격형용사이다. 앞의 (2)에서 제시한 성격의 특성에 따르면 ‘거칠다’와 함께 ‘친절하다’는 ‘어떤 사람의

10 김은영(2004:63)는 ‘성격’에 ‘행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행동, 태도' 등을 나타내므로 성격형용사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 관별 기준에 따르면 (11가)의 '거칠다'는 성격형용사이지만 (11나)의 '친절하다'와 같은 성격형용사는 성격형용사의 첫 번째 조건인 '(성격/머리가 Adj)'의 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의 목록에 들어있는 '친절하다'의 경우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백재남(2015)과 김자영(2018)에서 제시된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은 기본적으로 김은영(2004)의 성격형용사 관별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백재남(2015)의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은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이다. 이 틀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들은 성격형용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사고, 태도' 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김자영(2018:16)은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준은, "성격 형용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틀에 적당해야 한다"이다. 둘째 기준은, "성격 형용사는 말이나 행동, 사고 등의 성질이나 타인 또는 외부 사건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김자영(2018)이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은 모순 관계에 있다. 김자영(2018)의 둘째 기준에 맞는 형용사 중에서는 첫째 기준인 '그 사람의 성격이 Adj'의 틀에 적합하지 않는 성격형용사가 있다. 예를 들어, '순수하다'의 경우 앞의 (2)에서 제시한 성격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어떤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표현하므로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는데 '순수하다'는 김자영(2018)의 둘째 조건에는 만족할 수 있지만 첫째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는 형용사이다.

방영심(2018:255)은 성격형용사는 심성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과 같이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이는 속성까지를 포함하는 형용사로 보았는데,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성격형용사의 특성에 따라 성격형용사를 제시하였다.

- (12) 가. 느긋하다, 강경하다, 강하다, 선하다, 직하다  
 나. 강명하다, 영리하다, 명칭하다, 호매하다  
 다. 어질다, 친절하다, 거오하다, 차다, 무난스럽다

(12가,나,다)는 각각 심성적 면, 지적 면, 태도의 면에 관한 표현을 하는 성격형용사들이다. 앞의 (2)에서 제시한 ‘성격’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행동방식에 관해 표현하는 형용사도 성격형용사이다. 예, ‘털털하다’의 경우 주로 행동방식을 표현하는 성격형용사로 보이는데, 방영심(2018)이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유형인 (12)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영심(2018)의 성격형용사는 개인의 심성, 지성, 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 방식도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현정(2020:53)은 성격형용사의 특성으로 (공통)[+(사람)개인], ①[+행동양식], ②[+사고 양식], 타인을 대하는 ③태도에 대한 평가, 외부 사건이나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현정(2020)은 방영심(2018)와 마찬가지로 판별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성격형용사의 특성에 따라 성격형용사를 추출하였다. 그런데 정현정(2020)이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특성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성격형용사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속하다’의 경우 ‘사람의 행동이 신속하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현정(2020)의 기준에 의하면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의 (2)에서 제시한 성격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다’를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성격형용사에 대한 기존 논의들인 김은영(2004), 박재남(2015), 방영심(2018) 김자영(2018), 정현정(2020)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어 성격형용사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성격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성격의 형성구조(形成機制), 심리적 특징, 행동방식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지만, 언어학에서는 주로 어휘의 관점에서 주어 명사구의 의미 영역이 ‘성격’과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趙春利(2006:90)는 성격형용사를 고유한 ‘성격’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로 규정하여 추출 기준으로 ‘性格很Adj’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격’의 의미 영역을 갖는 어휘로는 ‘脾氣, 秉性, 心性, 本性, 性情, 個性, 脾性, 天性’ 등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13)에서 예문을 제시한다.

- (13) 가. 脾氣很暴躁.  
 나. 秉性很耿直.  
 다. 心性很高傲.  
 라. 本性很活潑.  
 마. 性情很剛烈.  
 바. 個性很倔強.  
 사. 脾性很溫柔.  
 아. 天性很好動.

(13가~아)는 ‘脾氣, 秉性, 心性, 本性, 性情, 個性, 脾性, 天性’ 등 모두 ‘성격’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趙春利(2006)에 의하면 ‘暴躁, 耿直, 高傲, 活潑, 剛烈, 倔強, 溫柔, 好動’ 등은 모두 성격형용사이다.

그러나 아래의 (14)에 제시한 형용사들도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지만 趙春利(2006)에 의하면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았다.

- (14) 가. 那個人性格很傲慢.  
 가. 那個人態度很傲慢.  
 나. 那個人性格很誠實.  
 나. 那個人態度很誠實.  
 다. 那個人性格很勇敢

다. 那個人行爲很勇敢.

(14)에서 ‘傲慢, 誠實, 勇敢’ 등의 형용사는 ‘性格, 態度, 行爲’ 등의 명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趙春利(2006:91)에 의하면 ‘傲慢, 誠實, 勇敢’을 말뭉치에서 검색하면 (14)에서 제시된 ‘傲慢, 誠實, 勇敢’ 등의 형용사가 ‘態度(태도)’나 ‘行爲(행위)’와 결합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性格(성격)’과 결합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이 趙春利(2006)은 ‘행동방식, 태도’에 관한 형용사는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에서 제외한 셈이 된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성격’ 뿐만 아니라 ‘태도, 행동’을 주어로 가지는 형용사도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傲慢, 誠實, 勇敢’을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傲慢, 誠實, 勇敢’ 등의 형용사들이 ‘性格’을 주어로 가지는 태도 불구하고 ‘態度, 行爲’ 등을 주어로 가지는 경우보다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雷立娜(2008:29)도 형용사의 분류를 趙春利(2006)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녀는 성격에 대한 정의를 『現代漢語詞典』에 따라 간단히 제시하고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성격형용사들이 말뭉치를 통해 공기하는 주어 명사의 빈도수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성격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없으면 제시한 성격형용사들의 근거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어휘 범주의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 범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성격형용사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기존 연구의 성격형용사 판별 기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은 ‘성격(personality)’의 특성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격형용사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성격’의 특성을 ‘한국어사전’이나 ‘중국어사전’에 의존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성격을 규정하

였기 때문에 ‘성격’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근거 제시에 미흡하였다.

성격심리학의 논의에 근거를 두고 (2)에서 제시된 ‘성격’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성격은 세상에 대한 성격 주체(인간 등)의 ‘마음, 사고, 행위, 태도/心底, 思維, 行爲, 態度’와 관련된 속성이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11</sup> 언어나마다 ‘성격’ 영역을 표상하는 명사 다른데 한국어에서는 주로 ‘성격, 마음, 사고, 행위, 태도’ 등이, 중국어는 ‘性格, 心底, 思維, 行爲, 態度’ 등이다.

성격형용사는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은 “성격형용사는 ① ‘성격 주체(사람 등)의 {‘성격’, ‘마음’, ‘사고’, ‘행위’, ‘태도’ / ‘性格’, ‘心底’, ‘思維’, ‘行爲’, ‘態度’}가 Adj다’ 또는 ② ‘성격 주체(사람 등)가 늘 (‘성격’을 표현하는) Adj”이다.<sup>12</sup>

### 3.2. 한국어 성격형용사의 목록

이 절에서는 위에서 제사한 성격형용사의 기준에 따라 성격형용사의 기본적인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성격형용사의 목록을 제시하기 전에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목록을 먼저 살펴본다.

- (14) 가. ?그 사람의 성격이 친절하다.  
 나. ?그 사람의 성격이 순진하다.  
 다. ?그 사람의 성격이 선량하다.

11 ‘성격’의 특성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性格是與性格主體(人等)對世界的‘心’思考’行爲’態度’/‘心底, 思維, 行爲, 態度’相關的屬性或方式”

12 성격형용사의 관별 기준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性格形容詞的辨別標準是“性格形容詞”.是①‘性格主體(人等)的{‘性格’,‘心’,‘思維’,‘行爲’,‘態度’/‘性格’,‘心底’,‘思維’,‘行爲’,‘態度’}很Adj”或②‘性格主體一直(表現性格的)Adj”.

(14가,나,다)의 ‘친절하다, 순진하다, 선량하다’ 등은 앞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특성에 의하면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절하다, 순진하다, 선량하다’ 등 형용사는 김은영(2004), 박재남(2015), 김자영(2018)의 판별 기준들에 적용하면 다 어색한 문장이 된다. ‘친절하다, 순진하다, 선량하다’ 등 성격형용사는 김은영(2004), 박재남(2015), 김자영(2018)의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따라 성격형용사로 보지는 않으나 성격형용사의 목록에는 전부 포함된다. 그러므로 김은영(2004), 박재남(2015), 김자영(2018)의 성격형용사의 목록은 부정확한 판별 기준이 문제가 된다.

- (15) 가. 느긋하다, 강경하다, 강하다  
 나. 강명하다, 영리하다, 명칭하다  
 다. 어질다, 친절하다, 거오하다

(15가,나,다)에서 각각 심성적 면, 지적 면, 태도의 면에 관한 성격형용사다. (15)에서 보듯이 방영심(2018)의 성격형용사의 목록에서 ‘행동방식’을 표현하는 성격형용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성격형용사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16) 가. 가볍다, 강인하다, 강직하다  
 나. 신속하다, 다정하다, 쾌속하다

(16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기준에 의하면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으나 (16나)는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16가,나)의 형용사는 전부 정현정(2020)이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는 부합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현정(2020)의 경우 (16가)의 ‘가볍다, 강인하다, 강직하다’와 같은 성격형용사를 성격형용사의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격형용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라 할 수 있는 정현정(2020)에서도 성격형용사의 부

정확한 판별 기준 때문에 성격형용사의 목록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성격형용사에 대한 기존 논의들인 김은영(2004), 박재남(2015), 방영심(2018) 김자영(2018), 정현정(2020)이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목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따라 성격형용사의 목록을 추출할 차례이다. 본 연구는 전체 성격형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빈도수가 낮고 넓고 잘 쓰이지 않아 직관적 판단이 어려운 성격형용사들을 대상으로 성격형용사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모국어 화자의 판단이 용이한 형용사를 대상으로 성격형용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4단계)(앞으로 ‘어휘 개발(4단계)라 약칭한다.’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sup>13</sup> ‘어휘 개발(4단계)’의 어휘 목록으로부터 본 연구가 설정한 성격형용사 판별 기준에 따라 성격형용사를 추출할 것이다.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적용 연구’에 수록되는 ‘어휘 평정 목록’은 ‘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선정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어휘를 1~6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휘 개발(4단계)’의 어휘들은 한국어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성격형용사 목록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4단계)에서 형용사의 목록을 모두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형용사 목록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격형용사의 변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를 추출한다.

셋째, 추출된 성격형용사의 사전 뜻풀이를 살펴 (2)에서 제시한 성격의 특성이 의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맞지 않는 것을 제

13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4단계)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용 선정 어휘 정비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3단계)’에서 선정된 어휘들을 통합한 목록을 재검토하여 추가 및 삭제 가능성이 있는 어휘들을 수집한 10,635개의 어휘 목록이다(국립국어원 2015). 이후로는 ‘어휘 개발(4단계)’라 약칭한다.

외한다.

먼저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4단계)’의 어휘 목록에는 총 10,635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형용사는 총 888개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형용사 목록에서 본 연구의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를 추출한다.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은 “① ‘성격 주체(사람 등)의 (‘성격’, ‘마음’, ‘사고’, ‘행위’, ‘태도’)가 Adj다’ 또는 ② ‘성격 주체(사람 등)가 늘 (‘성격’을 표현하는) Adj”이다.

아래에서는 예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격형용사를 살펴본다.

(17) 가. 그 사람의 성격이 거칠다.

나.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

다. 그 사람의 행위가 털털하다.

라. 그 사람의 태도가 친절하다.

마. 그 사람이 늘 {거칠다, 착하다, 영리하다, 털털하다, 친절하다}.

(17가,나,다,라,마)의 ‘거칠다, 착하다, 털털하다, 친절하다’ 등은 성격 주체(사람 등)의 (‘성격’, ‘마음’, ‘행위’, ‘태도’)가 Adj다’인 판별 기준을 적용해서 성격형용사를 추출할 수 있다.<sup>14</sup> ‘어휘 개발(4단계)’의 어휘 목록에 제시된 형용사 888개 중에서 본 연구는 설정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 152개를 추출하였다. 이런 결과로 본 연구에서 추출한 성격형용사는 ‘거칠다, 구수하다, 땃땃하다, 메마르다, 영리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털털하다, 힘차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김은영(2004), 박재남(2015), 김자영(2018), 정현정(2020) 등의 기존 연구에서는 ‘딱딱하다, 미지근하다’ 등을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14 단 한국어에서 ‘사고(思考)’를 주어로 가지는 성격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은 중국어에서 ‘思惟’를 주어로 가지는 성격형용사가 성립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다.

셋째, 사전 뜻풀이가 ‘성격’의 의미를 드러내어 주어 명사로서 ‘사람, 성격, 마음, 사고, 행위, 태도’를 포함하면서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부합하는 형용사를 성격형용사로 선정하고 그렇지 않은 형용사를 목록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존 연구들에서 ‘확실하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확실하다’로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확실하다’의 경우 사전의 뜻풀이는 ‘틀림 없이 그러하다’로 ‘성격’과 관련이 없지만 주변적으로 쓰였을 경우 성격형용사로 기능하는 듯하다. 그러나 ‘확실하다’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성격형용사로 다룬 ‘약하다’<sup>15</sup>는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으로 볼 때 성격형용사로 볼 수 없을 듯하다. 최종적인 성격형용사의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어 성격형용사의 목록

급수	성격형용사 목록
초급	게으르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부지런하다, 분명하다, 조용하다, 좁다, 착하다, 강하다, 급하다, 깨끗하다, 느리다, 답답하다, 무섭다, 세다, 시원하다, 싱겁다, 어둡다, 짜다, 차갑다, 차다.
중급	거칠다, 곧다, 곱다 <sup>01</sup> , 까다롭다, 깔끔하다, 꼼꼼하다, 냉정하다, 너그럽다, 느긋하다, 당당하다, 독하다, 못되다, 번덕스럽다, 사랑스럽다, 솔직하다, 순수하다, 순하다, 씩씩하다, 어리석다, 영똥하다, 용감하다, 원망하다, 유지하다, 점잖다, 지혜롭다, 활발하다, 힘차다. 뚜렷하다, 소홀하다, 우아하다, 조심스럽다, 날카롭다, 바르다 <sup>03</sup> , 올바르다, 명확하다, 구수하다, 미지근하다, 딱딱하다, 느끼하다.

15 ‘확실하다, 약하다’ 등은 본고가 제시하는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주변적으로 쓰일 때 성격형용사로 볼 수 있으나 연구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이런 어휘들을 제외한다. ‘거칠다’는 본고 제시하는 판별 기준에 부합해서 성격형용사로 보는 것이다.

고급	강인하다, 강직하다, 건방지다, 경솔하다, 고상하다, 과감하다, 과격하다, 관대하다 <sup>02</sup> , 교활하다, 그윽하다, 기발하다, 끈질기다, 나약하다, 냉담하다, 냉혹하다, 느슨하다, 능름하다, 단호하다, 담담하다, 대담하다, 돈독하다, 둔하다, 드세다, 멋멋하다, 매섭다, 모질다, 무난하다, 무뚝뚝하다, 무르다 <sup>03</sup> , 무모하다, 믿음직스럽다, 버릇없다, 별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빈틈없다, 뻔뻔하다, 사납다, 산만하다, 상냥하다, 선하다 <sup>02</sup> , 소박하다 <sup>01</sup> , 소심하다, 수다스럽다, 수줍다, 시원시원하다, 심술궂다, 악하다, 아무지다, 얄밟다, 연약하다, 예민하다, 완곡하다, 우직하다, 의젓하다, 익살스럽다, 자상하다, 자신만만하다, 잔인하다, 정정당당하다, 정중하다, 조급하다, 짓궂다, 차분하다, 착실하다, 치밀하다, 쾌활하다, 털털하다, 한결같다, 활기차다, 후하다, 메마르다, 민감하다, 민첩하다, 비좁다, 섬세하다, 소란스럽다, 슬기롭다, 싸늘하다, 엄중하다, 엄하다, 여러다, 온화하다, 정결다, 지독하다, 허술하다, 험악하다, 험프다, 현명하다. 확고하다, 후련하다, 훈훈하다.
----	---

### 3.3. 중국어 성격형용사의 목록

중국어 성격형용사를 제시하기 전에 기존 선행연구의 성격형용사의 목록을 살펴본다.

(18) 蠻橫, 誠實, 勇敢, 野蠻, 傲慢 등

(18)과 같은 성격형용사는 ‘態度(태도)’, ‘行爲(행위)’와 결합하는 빈도가 ‘성격’과 결합하는 빈도보다 많기 때문에 趙春利(2006)은 중국어 성격형용사 목록에서 이들을 제외하였다. ‘態度(태도)’, ‘行爲(행위)’를 표현하는 성격형용사는 趙春利(2006)의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목록은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19) 開朗, 調皮, 淘氣, 急躁, 任性, 溫柔, 坦率, 剛強, 懦弱, 殘暴 등

雷立娜(2008)은 (19)의 형용사를 성격형용사로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성격형용사의 목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따라 중국어 성

격형용사 목록을 제시한다. 중국어의 모든 형용사를 대상으로 성격형용사를 제시하는 것은 판별 기준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과 중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어의 경우에도 형용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중국어 능력 시험인 新HSK 『新漢語水平考試大綱』<sup>16</sup>에 근거를 두고 출판된 『新HSK5000詞分級詞典』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성격형용사를 선정할 것이다. 한국어 성격형용사를 선정하는 자료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성격형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범위가 너무 넓어 ‘성격’을 표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新HSK5000詞分級詞典』의 어휘 선정은 중국 내외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큰 7개 빈도 통계사전과 어휘표를 근거로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 중국어 교육어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吳玉榮 2006).

본 연구의 대상인 성격형용사 목록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출한다. 첫째는, 『新HSK5000詞分級詞典』에서 모두 형용사의 목록을 추출한다. 둘째는, 추출된 형용사 목록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격형용사의 변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를 추출한다. 셋째는, 추출된 성격형용사의 사전 뜻풀이를 살펴 (2)에서 제시한 ‘성격’을 특성을 표현하지 않고 중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 부합되지 않는 형용사를 제외한다. 사전은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의 『現代漢語詞典(第七版)』을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총 5,000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新HSK5000詞分級詞典』에서 형용사로 총 726개를 추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추출된 형용사 목록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격형용사의 변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를 추출한다.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은 “①‘性格主體(人等)的(‘性格’, ‘心底’, ‘思維’, ‘行爲’, ‘態度’)是Adj’或②‘性格主體一直(表現性格的)Adj’”이다.

16 2010년 정식 도입된 新HSK는 기존 시험과 비교해 등급이 11급에서 6급으로 축소되었으며, 유행도 듣기와 독해, 쓰기로 단순화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난도도 낮아졌다.

- (20) 가. 那個人的性格很開朗.
- 나. 那個人的心底很善良.
- 다. 那個人的思維很靈敏.
- 라. 那個人的行為很豪放.
- 마. 那個人的態度一直很和藹.

(20가,나,다,라,마)의 ‘開朗, 善良, 靈敏, 豪放, 和藹’은 ‘性格主體(人等)의 {‘性格’, ‘心底’, ‘思維’, ‘行為’, ‘態度’}很Adj’의 판별 기준을 적용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따라 『新HSK5000詞分級詞典』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형용사 726개 중에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로 153개를 추출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安靜, 爽快, 尖銳, 衝動, 頑固, 頑強’ 등이 들 수 있다. 참고로 趙春利(2006)와 雷立娜(2008)에서 ‘安靜, 爽快, 尖銳, 衝動, 頑固, 頑強’ 등은 성격형용사로 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의해 추출된 153개 성격형용사는 『現代漢語詞典(第七版)』의 사전 뜻풀이에 따라 ‘성격’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중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으로 다시 판정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好’ 등의 형용사를 성격형용사의 목록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정된 성격형용사의 목록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중국어 성격형용사의 목록

급수	성격형용사 목록
초급	-
중급	安靜 熱情 認真 特別 誠實 粗心 負責 害羞 活潑 積極 驕傲 暖和 熱鬧 嚴格 勇敢 幽默 有趣 仔細 自信 誠懇 單純 獨特 惡劣 憤怒 癡狂 幹脆 規矩 糊塗 活躍 尖銳 堅強 狡猾 謹慎 可靠 客觀 老實 樂觀 明確 樸素 謙虛 親切 勤奮 熱心 善良 坦率 天真 調皮 突出 溫暖 溫柔 小氣 虛心 嚴肅 自私 周到

고급	霸道 卑鄙 殘酷 殘忍 草率 沈悶 沈著 誠摯 遲疑 沖動 躊躇 純潔 慈祥 從容 粗 魯 脆弱 膽怯 分明 憤怒 風趣 高明 高尚 古怪 固執 果斷 豪邁 好客 和藹 和氣 狠心 急躁 尖銳 堅定 堅韌 嬌氣 拘束 倔強 開朗 慷慨 懇切 枯燥 快活 懶惰 冷淡 冷酷 廉潔 吝嗇 伶俐 靈敏 敏感 敏銳 樸實 謙遜 切實 勤勞 勤儉 勤懇 仁 慈 柔和 深沈 慎重 爽快 斯文 踏實 隨意 貪婪 洵氣 外向 頑固 頑強 溫和 文 雅 無知 務實 細致 狹隘 賢惠 消極 瀟灑 辛勤 兇惡 嚴厲 野蠻 英明 英勇 庸俗 油膩 幼稚 愚蠢 愚昧 真摯 鎮定 鎮靜 執著 忠誠 自卑 自滿 周密
----	--

#### 4. 결론

본 연구는 ‘성격(personality)’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한·중 성격형용사의 기본적인 성격형용사의 목록을 제시한 연구이다.

성격심리학에서 논의한 ‘성격’의 특성을 바탕으로 ‘성격’을 정의하면 “성격은 세상에 대한 성격 주체(인간 등)의 ‘마음, 사고, 행위, 태도/心底, 思維, 行爲, 態度’와 관련된 속성이나 방식”이다. 성격형용사는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은 “성격형용사는 ①‘성격 주체(사람 등)의 {성격, ‘마음’, ‘사고’, ‘행위’, ‘태도’ / ‘性格’, ‘心底’, ‘思維’, ‘行爲’, ‘態度’}가 Adj다 또는 ②‘성격 주체(사람 등)가 늘 (‘성격’을 표현하는) Adj” 등 두 가지이다.

성격형용사의 분별 기준을 이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형용사에서 성격형용사를 추출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4단계)’의 어휘 목록에는 총 10,635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형용사는 총 888개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는 ‘게으르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부지런하다’ 등 152개이다. 중국어의 경우, 『新HSK5000詞分級詞典』의 어휘 목록에 제시된 형용사 726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격형용사의 판별 기준에 맞는 성격형용사는 ‘勇敢, 卑鄙, 幼稚, 殘忍’ 등 153개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중 성격형용사의 기본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두 언어의 성격형용사의 대조만으로 성격 표현을 모두 드러낼 수 없기 추후에는 성격과 관련된 구, 절, 관용 표현, 속담 등 성격 표현(expression of personality)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Basic Contras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Chinese Personality  
Adjectives**

-Based on the criteria and lexicon item list of personality  
adjectives-

Wang, Xiaoyu · Kim, Seongju(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the contras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Chinese personality ad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of personality adjectives in personality psychology and lists the criteria and the basic catalogue of personality adjectives. In the existing research,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personality adjectives are vague and insufficient, so there are problems in the proposed personality adjective catalogu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in personality psychology, and based on this, defines personality as "the attributes or ways related to the 'heart, thinking, behavior, attitude' of the world's personality subjects (human beings, etc.)". Because "personality" is about 'the way the mind, thinking, behavior and attitude', so the criteria for a "personality adjective" is as follows. (1) The personality subject's "mind, thinking, behavior and attitude" are Adj.; (2) The personality subject (people, etc.) is always Adj'.

According to this criteria, 152 personality adjectives such as "kaeoreu-(게으르-, to be lazy), ttaddeutha-(따뜻하-, to be warm), pudeureop-(부드럽-, to be soft), and pujireonha-(부지런하-, to be diligent)" can be extracted from the Development of Contents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4 levels). In the same way, 153 Chinese personality adjectives such as "yonggan(勇敢, to be brave), beibi(卑鄙, to be cowardly), youzhi(幼稚, to be childish), canren(殘忍, to be cruel)" from the lexical items in Dictionary of New HSK 5000 word distributed by levels.

**Key words:** Personality, Personality psychology, Personality adjectives, Behavior, Attitude, Mind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1-7535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어휘 내용 개발(4단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1-142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李祿興, 『新HSK5000詞分級詞典(1-3級)』,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1-396면.

李祿興, 『新HSK5000詞分級詞典(4-5級)』,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4, 1-662면.

李祿興, 『新HSK5000詞分級詞典(6級)』,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4, 1-732면.

舒新城 外, 『辭海(第七版)』, 上海辭書出版社, 2020, 1-6420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新華字典(第十二版)』, 商務印書館, 2020, 1-711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七版)』, 商務印書館, 2016, 1-1799면.

### ■ 단행본

김정남, 『국어형용사 연구』, 역락, 2005, 1-281면.

노안영 · 강신영, 『인간이해 및 성장을 위한 성격심리학』, 학지사, 2003, 1-494면.

배해수, 『국어내용연구-성격 그림씨를 중심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1-505면.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1-1568면.

유현경,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8, 1-402면.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1971, 1-1199면.

Allport, G.,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1-608면.

Burger, J. M., *Personality(10th ed.)*, New York: Macmilan Publishing, 2018, 1-560면.

Carver, C. S. & Scheier, M. F., *Perspectives on Personality(7th ed.)*, Boston: Allyn & Bacon, 2012, 1-450면.

Maddi, S. R.,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6th ed.)*, New York: Brooks/Cole, 1996, 1-586면.

Mischel, W., *Introduction to personality(8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2007, 1-592면.

Ryckman, R. M., *Theories of personality(7th ed.)*, Belmont, CA: Wadsworth, 2000, 1-194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은영, 「국어 성격 형용사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1-31, 언어과학회, 2004, 57-80면.

김자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성격 형용사 유의어 의미 변별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85면.

박재남, 「한국어 성격 형용사의 분류와 교육 방안」, 『한국어와 문화』 1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131-157면.

방영심, 「성격 형용사의 어휘사-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와 변화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247-278면.

정현정, 「한국어 성격형용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295면.

雷立娜, 「常用双音节形容词与其后置名词搭配研究」, 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1-66면.

吴玉荣, 「汉语水平考试大纲(HSK)制订、调整的历史演变研究」, 吉林大學大學院 碩士論文, 2006, 1-84면.

趙春利, 「形名組合的靜態與動態研究」, 暨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1-218면.

접수일: 2021. 07. 31 총평일: 2021. 08. 21 게재확정: 2021. 08. 29